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오늘 찬양예배 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온 7기 집사 20명과 5대 권사 40명의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열린다. 오늘 후보들은 지난주 순례자 (540호)에 게재되었으며 오늘 은 배부되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 된다. 본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은 모두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며 준비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해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한편 오늘 공동의회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초등부 학생들의 특별발표 시간도 함께 갖게 되어 축제같이 즐거운 가운데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로 모이게 된다.

2002 홍해작전 시작 된다

표어, 행동강령, 기도제목, 조직 확정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40:1)”를 주제로 오는 6월6일부터 시작되는 2002홍해작전의 승전을 위한 표어, 행동강령, 기도제목, 조직이 모두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올해의 주제와 기도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여 가정과 국가의 흥해를 건너지는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주 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40:1)
- 표 어
하나님의 위로 받고 이웃을 위로하자
- 기 간
2002. 6. 6(목) ~ 6.25(화) 새벽 5~6시

· 행동강령

- ① 내실 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②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③ 책임 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7대 기도제목(3면 참조)

· 주력부대 (3면 참조)

· 조 직

- 사령관: 이중윤 목사
- 지 도: 고경선 목사
- 참모장: 노문환 장로

주일 교회계단 일방통행 실시

매 주일 교회당 내부 전체는 지하부터 8층 식당까지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성도로 복잡하게 엉켜서 매우 혼잡하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계단에서의 혼잡은 곧바로 성도들의 안전과 직결됨으로 일부 층의 계단을 일방통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예배위원회(위원장 최중시 장로)에 따르면 1~4층까지 한티공원 쪽의 계단(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은 위의 층으로 올라가는 성도들만 사용하고 2~4층까지 교회정문쪽의 계단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성도들이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5~9층까지의 계단은 일방통행을 실시하지는 않으나 질서 있는 왕래를 위하여 좌측통행을 실시한다. 또한 예배위원회는 먼저 성인 성도들의 순선수법을 통해 자연스레 학생들도 따라가는 일방통행의 정착을 부탁하고 있다.

본 교회당 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소로 개방

이웃 주민에게 열린 교회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교회는 오는 6월13일(목)에 실시되는 6.13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투표소로 교회일부를 개방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교회가 개방기로 한 장소는 1층 102호 미스바 홀과 화장실이며, 우리교회와 함께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와 대치중학교, 대치 초등학교가 각각 대치동 투표소로 선정되었다.

† 단 신 †

† 전교인 사진촬영 안내

장소: 802호(비전 홀)
시간: 6월9일까지 매주일 1,2부 예배 후
오늘의 촬영대상: 남년 제직회원 전원, 1~4교구, 살롬 권사회

† 사랑부 사랑의 큰잔치 안내

- 1. 작품전시회:
테이프 커팅: 5월26일(주) 오전 10시20분
(교역자 당회원 남년 선교회 전도회 임원 사랑부 교사 학생 참석)
전시 기간: 5월26일(주)~6월2일(주)
전시 시간: 오전 10:20 - 오후5시
전시 장소: 1층 미스바 홀
- 2. 10주년 감사예배
시간: 6월1일(토) 오후 3시~6시
장소: 1층 웨스트민스터 홀
설교: 이중윤 위임목사

부서	지도/부장	차장	위원
기획부	고경선/이복규	우지원	김중근, 송인권, 이학주
행정부	이규정/홍성주	서춘식	오광환, 신용식, 이남성
예배부	이성덕/최중시	박두영	오형철, 유중관, 김현영, 김규태
찬양부	윤영국/성준경	김형택	박정선, 허희철, 이태상, 백수남, 최형렬, 김금준
동원부	김운호/박두호	황정옥	김영주, 최용결, 이상호, 이계홍, 탁경준
홍보부	정윤돈/노송성	이재원	김인수, 정동호, 장양일
봉사부	지혜영/윤찬오	조정식	한길동, 이승우, 오유식, 양인수

이사야서 강해

하나님의 교회가 기뻐하는 이유

(이사야 61장 10 - 11절)



이종운 목사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땅은 근심과 한숨과 눈물만 있는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던 선교사들은 그 때 우리 나라에는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에게조차 기쁨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교회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교회에 올 때는 근심에 눌려 있었다고 해도 교회에 오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는 예루살렘, 곧 시온,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기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생겨지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1. 교회는 여호와로 인해 크게 기뻐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눅 1:46-47).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10절).

여호와와의 축복을 받은 교회들은 영광스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존재이며 무엇보다 이 사실을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겹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입을 가죽옷은 피 흘린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옷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계 19:8).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을 하도록 겹옷까지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워진 성도는 옳은 행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신랑이 사모를 쓰고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의로워지고 구원의 옷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 어둠에서 광명을 찾은 것, 지옥 불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십니다. 다음에 구원에 들어가도록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하도록 하십니다. 중생한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음의 두 가지 현상

여호와와의 축복을 받은 교회들은 영광스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존재이며 무엇보다 이 사실을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겹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타나는데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칭의), 법정적 의의 얻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성의)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예지 하심부터 영화에 이르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닌 논리적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2. 주 여호와께서 교회를 의롭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다

"땅이 짝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11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교회는 찬송을 부르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발생하게 하실 의와 찬송이 교회에 있게 됨으로 교회는 기뻐합니다.

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던 식물이 봄철이 되니 또 다시 싹을 냅니다. 동산에 뿌린 씨가 봄에 새싹을 내듯 여호와께서는 교회에 의와 찬송이 계속 솟아나게 하십니다. 교회는 짓밟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 같던 교회에 의의 싹이 솟아나고, 찬송의 싹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싹을 냅니다. 봄이 되면 의로운 태양이 소생시키는 영광이 다가오므로 교회는 반드시 다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3 백년이 되도록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결국 전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처형을 받는 다거나 가문에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교회나 공산권 교회들도 엄청난

핍박을 견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핍박을 하면 소멸될지 모르나 교회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찬양을 하도록 굳기치는 힘을 주십니다.

3. 의와 찬송은 멀리 퍼지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11절).

교회가 찬송을 부르므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전파됩니다. 큰 구원은 교회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선포되고 전파될 것이며 세상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때 교회는 그것을 보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의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의 결과는 찬송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면 찬송을 부르게 되어있습니다. 찬송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선행이 타인에게 알려지고 칭찬의 대상이 되고 이웃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모든 나라 앞에 교회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승리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해도 기뻐는데 어둠의 권세와 사망을 이긴 기쁨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대상 29:11)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21:31),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요일 5:4),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삼상 2:9),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히 11:33),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2 홍해 작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홍해작전이란 무엇인가?

'홍해작전'의 취지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 바로의 군대에 쫓기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 모세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현재의 모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바로 홍해작전이다.

홍해작전은 해마다 현충일인 6월6일에 시작하여 6월 25일 6.25사변 기념일까지 20일 동안 전개된다. 전 교인은 이 기간에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고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호국의 달 6월에 나라와 민족사회의 현실과 장래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며, 이와 함께 성도 개개인의 영적 회개의 기회를 갖고, 교회의 오늘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온 새벽기도회를 배우고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힘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말씀과 기도를 씩씩이 힘써야 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은 전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합하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정한 공동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창립이후 1992년 봄부터 매년 홍해작전을 전개해 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참석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년의 세월동안 예배당 건축과 외환위기시대 등 교회와 국가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앞에 놓고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동안 이 문제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리므로 성도들은 새벽마다 서울전역과 수도권일대에서 달려왔고, 아예 교회주변 성도의 집에서 묵기도 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자발적인 참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게다가 김치세미나 (KIMCHI세미나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에 참석한 많은 해외 교계 지도자들도 이 홍해작전에 참석해 한국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자국에서도 이를 계승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이어진 것은 또 하나의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새 성전 시대를 맞아 서울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홍해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서울교회에 처음 온 성도들도, 또 그 동안 홍해작전에 참석했던 성도들도 모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쓰며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교회는 촉구하고 있다.

김민철(편집부)



2002 홍해작전 기도제목

1. 개인의 회개와 연신을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어
주님 위해 살게 하소서.

2. 가정의 구원과 평안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3. 우리교회의 부흥과 사명을 위하여

받은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침으로
질적·양적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하소서.

4. 우리교회의 교육과 젊은이를 위하여

새운 교육목표 달성케 하시고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새벽 별같이 쓰임 받는 일꾼 되게 하소서.

5. 우리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부름 받은 일꾼들이 계속 많아지게 하시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새 예배당 헌당하여
복음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소서.

6. 한국교회의 부흥과 사명을 위하여

민족의 75%가 그리스도인 되어
한국교회가 온 세계의 제사장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소서.

7. 조국의 평안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국가적 대사를 평안으로 인도하사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게 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서울교회 상담실 †

- 상담시간: 오전 11:30-1:00 (403호)
 - 상담방법: 인터넷상담, 즉시 면담,
간사와의 전화예약 (019-376-3892),
- | | |
|----|---|
| 법률 | 이승준 - lawboram@hanmail.net 법률상식 및 소송절차 |
| 세무 | 왕경래 - wk139@hanmir.com 세무상식 및 세무처리절차 |
| 병무 | 이번생 - bslee@5425.com 병무에 관한 전반 |
| 의료 | 안인호 - Adavid@hosanna.net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피부과정형외과,
내과, 치과, 한의과 |
| 교육 | 이은옥 - Benijade@hanmail.net 교육 및 학교생활문제전반 |
| 가정 | 김은태 - eunkim111@hanmail.net 가정문제 전반 |
| 결혼 | 이영희 - yhiee52@empal.com 초혼 및 재혼 |

2002 홍해작전 주력 교구

날짜	6일(목)	7일(금)	8일(토)	9일(주)	10일(월)	11일(화)	12일(수)
주력 교구	개전 예배 전교인 총동원	1교구 7교구	2교구 8교구	3교구 9교구	4교구 10교구	5교구 11교구	6교구 12교구
찬양대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렘	호산나	시 온	가브리엘
날짜	13일(목)	14일(금)	15일(토)	16일(주)	17일(월)	18일(화)	19일(수)
주력 교구	1교구 7교구	2교구 8교구	3교구 9교구	4교구 10교구	5교구 11교구	6교구 12교구	1교구 7교구
찬양대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렘	호산나	시 온	가브리엘	할렐루야
날짜	20일(목)	21일(금)	22일(토)	23일(주)	24일(월)	25일(화)	
주력 교구	2교구 8교구	3교구 9교구	4교구 10교구	5교구 11교구	6교구 12교구	전교인 총동원	
찬양대	임마누엘	베들레렘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할렐루야	

† 6월30일(주일)은 승전 감사의 날 / 찬양예배-승전 감사예배

전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라

다음은 지난 5월 18일에 있었던 교구일꾼수련회의 강사인 과천교회 김인아 전도사의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

김인아 전도사는 1995년 전 평신도로서 과천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 교구와 전도대를 맡아 목회하였다. 김 전도사는 특히 전도에 특별전도대를 편성하여 놀라운 전도의 효과를 얻었고 이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교회에 전도에 관한 집회를 갖고 있다. 김인아 전도사는 규장출판사의 '아름다운 전도왕'의 저자로 한 영혼을 위하여 뜨거운 기도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락방 관리

· 결석 가정을 집중 관리하라

다락방 예배에 결석한 가정은 반드시 당일에 심방을 하고,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 그들의 주일 예배 출석 여부를 항상 기억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심방을 통하여 결석 가정을 교회와 다락방 예배에 이끌어 내도록 하라.

전도

1.매일 전도대를 편성하라

전도는 하루도 쉬면 안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매일 전

도한다는 것은 부담이 크므로 월수 전도대, 화목 전도대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해진 지역에 전도하되 전도대에 속한 사람은 절대 결석하지 말라

2.전도의 바운다리(경계선, 한계선)를 정하라

전도는 아무 데나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전도할 지역의 바운다리를 먼저 정한 후 하라.

3.축호 전도를 하라

각 가정을 일일이 전도하듯 한 번 갔던 전도대원이 계속적으로 같은 가정을 방문하여 사귀도록 하라.

4.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되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

전도의 열매를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열매가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뿌리라.

5.헌신하라

전도하다가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즐거움으로 이겨낼 때 전도는 성공한다. 예를 들어 옥을 들어도 끝까지 웃으며 복음을 전하고, 혹시 물질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하라.

6.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예를 들어 절 패가 붙은 집이 있다고 해도 그 가정을 전도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전도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7.정보를 이용하라

주변에 이사오는 가정이 있거나(도시가스 회사나 동회를 이용하여 이사오는 가정을 알아보자), 혹은 교회에 다니다가 쉬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들으면 즉각 대응하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가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자.

정리 : 허숙(편집부)

태신자를 위한 기도

안병일, 고경현, 박상현, 최윤석, (다음호에 계속)

동정

- 이종윤 목사는 연장회(연세대학교 장로교 목회자 동문회)를 27일 우리교회에 초청한다.30일 한국장로교회 연합회 정체성 위원회를 소집한다.
- 개일: 이애경 성도 (1교구)가네다 피부 미용실 501-3433
- 이사: 박종민 권사(7-13) 일산시 중산마을 두산 아파트 908-103
 - 정무균 집사, 이영희권사 가정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일신건영apt 101-804
 - 정권 김금란 성도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일신건영apt 101-1602
- 이송선 성도(11교구) 5월22일(수) 대학원합동 연주회

· 천사의 말한다 해도 마음에 사랑 없으면 · 김혜연 집사(5교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사 43:21)

교회 공지를 통하여 가족 찬양 대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찬양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의미도 깊고 아름다운 곡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조옮김이 많고 불협이 만들어져야 화음이 되는 곡의 특성으로, 연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어리고... 그 때 주 영이의 도움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곡을 다운 받아 우리는 매일 그 곡을 들으면서, 곡을 익혀 나가기 시작했다. 집에서나 차에서나 어디서든지.

비록 쉬운 곡이 아니었음에도 우리 가족의 리더인 김동연 집사의 한 마디는 우리 찬양의 좋은 이정표가 되었다.'찬양 준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예배이다.' 찬양을 준비해 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많은 인내와 양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번 준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또 하나의 수확은 바로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찬양 연습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 가족은 "내가 천사의.."하면서 운만 띄우면 여기 저기서 그 뒤를 이어 나간다.그리고는 마침내 찬양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인지...

또 하나의 빼 놓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는 매번 부를 때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흥얼거릴 때마다 찬양 가사를 통하여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맞을 수 있음이다. 가끔은 화도 나고 불만스러운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되어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가족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곧 바로 나 자신을 다시 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 드린다.또한 모든 가족들의 준비와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화답하는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그 감동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또한 어머니의 철수를 맞아 가족의 화목한 모습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족으로서의 너무나 귀한 칠순 선물을 드릴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 그리고 계속되는 가족 찬양 대회에 우리 가족은 지속적으로 참석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가족(God's Singing Family)' 이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유다(찬양)가 앞설 것이다." 찬양하는 우리 가족이 앞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이 될 것이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리"

- ☞ 금주의 식사제공: 이범수 집사, 양용자 권사 가정 (수술후 패유에 감사하며)
- ☞ 목회자세미나 식사 제공: 김재근 집사, 인본선 권사 가정
- ☞ 목회자세미나 간식 제공: 김세제 장로, 이윤진 권사 가정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1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홍해작전에 받을 은혜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